100년 전법불사 이어가는 부루나 후예



장정화 회장은… 1974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났다. 1987년 삼천사 불교학생회 입회했으며, 청년회 홍보부장을 역임했다. 2005년 대불청 예천지회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경북지구 예천지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대불청 3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2023년 대불청 32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사)KYBA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대의원, 대한불교조계종 경주 마애불 '천년을세우다'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종단협의회장상(대불청),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상 대상(단체),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대상 원력상(단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테마人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수행자들이여, 인간의 이익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둘이 가지 말고 홀로 가라. 처음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우며 말과 내용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라."

2500여 년 전, 부처님이 60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전도선언'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시작됐다. 부처님의 결심과 60명의 제자들에서 시작된 불사였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부루나와 아난이 있어 오늘의 우리는 그 가르침으로 살고 있다. 시대마다 이름을 달리한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 부처님의 '전도선언'은 유구한 역사와 함께하며 지금까지 인류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의 부루나와 아난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당부를 받들고 있는 이가 또 있다.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중앙회장이다.

대한불교청년회 첫 여성 회장

"제가 하고자 하는 혁신은 제 임기만 빛내는 2년짜리 혁신이 아닙니다. 지난 30대 집행부가 이뤄놓은 그룹화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만해평화센터를 후원해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회향의 마음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21년 2월 대한불교청년회는 제31대 중앙회장으로 장정화 前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 대불청 100년 역사가 배출한 첫 번째 여성 중앙회장이다. 장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서 천명했던 혁신은 자신의 임기 2년, '2년짜리'가 아닌, 앞으로 100년을 기대하는 원력이다.

1920년 6월, 만해 한용운 스님은 청년들과 함께 '불교를 통한 민족의 각성, 조선의 독립'을 기치로 하여 '조선불교청년회'를 창립해 민족각성과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광복 이후에는 조직을 재정립해 1962년 6월 '(사)대한불교청년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대불청은 그렇게 명징하고 간절한 이유로 탄생했다.

"그 시절에 만해 스님은 '청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정신을 똑바로 해야만 한 나라의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가 아니었더라도 '청년'이라는 명제는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중요하고 명징한 시대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정화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불청은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고, 그 시작이 만해 스님이라는 것에서 한국불교사에서 굵은 글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불청이 지나온 100년이라는 세월은 한국불교사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기둥 중 하나인 것이다. 때문에 대불청의 피는 '청년'일 수밖에 없다. 청년을 바로 서게 하는 포교와 전법, 바로 선 청년이 전법을 펴는 불사가 대불청의 소임인 것이다. 곧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받드는 일인 것이다.

대불청은 2023년 현재 직할 2곳과 지구 14곳, 지회 65곳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년 13만km 달리며 '대불청' 알려

"제가 2년 동안 자동차로 이동한 거리가 13만km였어요. 2년 동안 제가 발로 뛴 거리가 성과의 첫 번째 척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발로 뛰어야하는 이유는 단지 대불청의 이름만을 알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불청의 지향점과 실천, 그리고 다소 편향됐다고도 볼 수 있는 대불청의 이미지를 고쳐서 제대로 알리고 싶었어요."

신임 회장에 취임한 장 회장은 우선 대불청의 존재를 좀 더 많은 불자들과 대중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존재 자체를 알리는 일과 더불어 그동안 사부대중이 대불청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바로잡음'의 차원도 큰 이유였다. 장 회장은 그것이 대불청이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우선 발로 뛰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만나는 대중마다 일일이 대불청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전했다.

그리고 장 회장은 대불청을 알리는 데 미디어를 활용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미디어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행보를 보여야한다고 생각했다.

"대불청 재정이 어렵다보니 재원을 이용한 홍보나 광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미디어'였어요. 우리(불교)는 신문, 방송 등 불교 언론사가 많이 있잖아요. 불교만 생각하는 언론이 있다는 것, 불자로서 행복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신문사와 방송사 뉴스에 매일 대불청이 나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대불청이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대불청이 있어야 할 곳, 하지 못했던 일을 생각하고 움직였어요."

2021년 대불청 첫 여성 중앙회장
2023년 첫 여성 회장으로 연임해
2년 임기 중 이동 거리 13만km
'대불청' 홍보, 대상포진만 두 번
서울 성북구에 만해평화센터 개관

'2022년 대불청 활동보고서'를 들여다보았다. 그 첫 번째 줄에는 '만해 스님 선양사업'이 있었다. 대불청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만해'를 기리는 일이다. 대불청은 그동안 이어왔던 만해 스님 열반 78주기 다례재와 전국만해백일장을 개최하며 첫 번째 본분에 충실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만해평화센터 개관이다.

대불청은 2021년 서울 성북구에 만해평화센터를 마련했다. 만해평화센터는 대불청의 100년 대계 사업 중 하나다. 만해평화센터 개관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 청년불자의 자립공간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만해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불교 중흥을 위한 전법의 도량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 밖에 대불청이 2022년에 성료한 불사는 너무나 많다. 그 중 행정안전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진행한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교육사업은 부처님 전도선언를 제대로 받든 불사라고 할 수있다.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교육사업은 꼭 언론사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법과 포교라는 대불청의 소임을 제대로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법이라는 불사는 부처님의 '전도선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용을 갖춘, 즉 제대로 알고 전해야 하는 일입니다.

C2면에 계속

INSIDE

C5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연등

C12·13 화보 2023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C17 이안의 '미디어 인 붓다' 영화 〈슬픔의 삼각형〉